

하박국 강해② “이해 할 수 없는 대답”

하박국 1장 5-8절

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 보라 내가 사냥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져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외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닐까요?

하박국의 의문이 무엇이었나요?

차마 견딜 수 없는 불의를 묵도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의 암담함을 보면서, 왜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에 그 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경우이거나,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으로 인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땅이 가물었는지,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농사를 망치게 될 위기 가운데서
말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교회 밖을 나오는데 소나기가 오기 시작했
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황했지요, 어떻게 저 빗속을 뚫고 집으로 갈까 하고 말입니다.
그 때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우산을 펴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가문 날에 우산을 가지고 왔니?” 그러자 그 아이는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준비를 했죠”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것과 형식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어쩌면 진지하지도 간절하지도 못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간절하게 세상을 사는 자만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박국 1장 1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었다면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 하시지 않다니요. 그것도 자신의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함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지요.

응답의 의의성

하박국이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죄 지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구원해 달라는. . .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박국이 물었던 물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점점 부패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를 방관하시겠습니까?”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는 이 땅위에서 불의가 없어지고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심판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방관하지 않는다. 내가 일을 시작한다.”

하박국 1장 5-6절

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공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등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 -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응답하신다’ -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거절의 의미로
혹은 ‘즉각적인 응답으로’ - 올바른 기도를 할 때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세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한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결국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올바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박국이 미칠 노릇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살자고, 저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
자고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그런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가 정욕적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을 보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차 깨닫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까?

이 땅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 은혜를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지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이제 나타나는 ‘응답의 의외성’이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매순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 .

다시는 방황 앓으리, 주님 인도하시니. . .”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리라” 는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섭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혹은 의외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응답이 결코 유쾌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런 신앙인의 성숙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시 새롭게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힘을 떨치기 시작한 바벨론이 일어나서 불의에 빠진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기도한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충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상태가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 . .

하박국은 아직 철저히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도 깊은 죄악 가운데 있고, 갈대아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다른 포악한 민족에게 벌을 받는 것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주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일단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래요, 하박국이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주는 사람이 똑같이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당연히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만 비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들을 심판하는 이들이 자격 없다는 것이지요.

일견 보면, 하박국이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벌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일단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나와 똑같이 잘못된 놈이

있다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지 용서를 넘어서서 잘되는 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맘이다!”

지금 너는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내가 지금 너의 잘못에 대해 징계하고 있는데 무엇을 따지느냐는 말이지요. 그래도 하박국은 억울한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 그들의 기세가 소름이 오싹할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 바벨론의 교만을 묘사하는 말로, 자기 외에는 결코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오직 승리자요, 점령자로서 모든 재판과 권위의 주체가 된다는 말.

8.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 계속해서 바벨론의 기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범은 ‘항상 먹을 것을 엿보는 맹수’입니다.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 저녁 이리는 한번 먹을 것을 움켜쥐면 아침까지 남겨두는 일이 없이 다 먹어 치우는 방의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성격이 이 두 동물의 호전성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공격 대상으로 삼은 성읍은 결코 내버려두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 이들의 민첩함이란 독수리에 비견될 만한 것입니다.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이 목격한 유다의 문제가 바로 ‘강포함’이었다면, 이제 유다를 심판하러 오는 바벨론의 성격이 바로 ‘강포’를 행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강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포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예언과 경고를 접하게 되는데, 이제 유다의 백성 중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는 세 차례에 걸쳐 엄청나게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유대 민족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고뇌를 보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생각과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